

자동차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지는 안전장치로 에어백 등 다른 어떤 첨단 안전장치보다 중요하다. 마력, 연비 등 수치로 드러나는 차량 제원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브레이크 기능이 뒷받침 되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크의 중요성을 크게 심각하지 못해 점검하는 것에도 소홀한 편이다. 브레이크 점검을 미루다 발생하는 브레이크 고장은 차량을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PLAY KIA(play.kia.com)가 브레이크 점검 방법을 소개했다.

■ 브레이크 액과 패드의 교체주기?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브레이크 액과 브레이크 호스 및 라인의 누유, 파손 여부는 각 차량마다 주행 조건이 다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브레이크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량 취급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관없이 브레이크를 조작할 때 평소와 다르게 잘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면 바로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평소보다 더 깊게 밟아야 작동하거나, 킁킁 하는 금속성 소리가 나는 경우, 밟았을 때 푹푹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행을 삼가고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



▲ 사진=shutterstock

■ 브레이크를 움직이는 '실세', 브레이크 액

보닛을 열면 브레이크 액이 저장된 탱크가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액 탱크의 눈금이 'MIN'과 'MAX' 사이에 있는지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브레이크 액이 급격히 소모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서서히 줄어들기도 하고, 브레이크 라인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자기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브레이크 액 탱크 용량을 확인한다. 브레이크 액이 서서히 줄어들면

서 'MIN' 아래를 가리킨다면 브레이크 액 보충을, 갑자기 줄어든다면 즉시 서비스 센터에서 브레이크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브레이크 액 점검은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세' 이므로 더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사진=shutterstock

브레이크 액 탱크 뚜껑을 열어 안쪽을 보았을 때 습기가 맺혀 있다면 브레이크 액에 수분이 섞여 있다는 뜻이다. 브레이크 액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작동 시 발생하는 고온에서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0℃ 이상의 높은 끓는점을 갖는데, 수분을 포함할수록 끓는점이 낮아져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브레이크 액이 끓어오르면 브레이크 액이 채워진 브레이크 호스에 기포가 생겨나는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브레이크 패드를 누르는 피스톤에 압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푹푹 꺼지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고 제동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외부 기온이 높아 브레이크가 빨리 식지 않는 여름철이나 내리막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베이퍼 록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 수분과 브레이크 분진 등 각종 노폐물이 브레이크 호스 내부에 들어오면 제동력은 점점 떨어진다.

■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점검

브레이크 액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지시된 힘을 전달하는 '실세' 라면 각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실제로 바퀴의 속도를 줄이는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바퀴를 직접 잡아서 속도를 줄이기 때문에 강한 힘과 내구성이 필요한 부품이다. 무엇보다 이들 부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자동차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휠과 함께 돌아가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움켜쥐어 강한 마찰력으로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패드는 마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패드가 닳아 얇아진다. 브레이크 패드는 얇아질수록 기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 시기가 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브레이크 패드 잔량은 휠 안쪽으로 브레이크 캘리퍼 안쪽의 패드를 보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끼악~' 하는 소리가 나거나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온다면 이 역시 브레이크를 교체할 때가 됐다는 뜻이다. 브레이크 패드 옆에는 쇠막대가 붙어 있는데, 패드가 막대와 평행한 수준으로 마모되면 브레이크 디스크와 닿으면서 날카로운 소음을 낸다. 또한 패드 내에 센서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패드가 마모되면서 센서가 작동해 계기판에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기도 한다. 브레이크 패드는 급제동이 잦거나 가혹 조건에서 주행하게 되는 등 주행 습관에 따라 마모도는 달라질 수 있다.



▲ 사진=shutterstock

■ 브레이크, 제대로 사용하면 수명도 늘어난다

평소 좋은 운전 습관과 자동차 관리 습관을 갖춘다면 항상 브레이크 브레이크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자동차는 되도록 과적을 삼가고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주행 직후 세차를 할 때 브레이크에 직접 물을 뿌리면 브레이크 디스크가 갑자기 식으며 휘게 되는 등 열변형을 가져올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식기까지 충분히 기다린 후 세차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차할 때 브레이크에 직접 고압수를 뿌리는 것은 브레이크 액의 수분 함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차할 때 브레이크 부분에 물을 과도하게 많이 뿌리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브레이크는 급하게 깊숙이 밟기보다는 부드럽게 단계를 나누듯 밟는 것이 제동력도 높이고 브레이크의 수명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 2019 Allstate Insurance Co. 9772519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